

## 혼혈인의 디아스포라적 기억의 재구성

- 『만 가지 슬픔』과 『내 유명 형의 기억들』을 중심으로

변 화 영\*

차 례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혼혈인의 자기 해방적 글쓰기 |
| II. 소수자의 몸과 그 흔적    | V. 맺음말              |
| III. 디아스포라로서의 아메라시안 |                     |

국문초록

한국계 미국인 엘리자베스 김이 발표한 『만 가지 슬픔』(20002)과 하인즈 인수 펜클이 출간한 『내 유명 형의 기억들』(1996)은 자서전적 소설이다. 자서전적 소설의 특징은 자서전의 진실성이 담보되면서 소설의 허구성이 가미된데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강점은 소설이 자서전보다 더 진실하다고 선언될 수 있는 양식이라는 데 있다. 자서전적 소설은 서술주체 ‘나’가 경험주체 ‘나’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전달하는 서사적 성격 때문에 서술주체와 경험주체의 간극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층위들에 의해 소설 속의 ‘나’뿐만 아니라 실제 인물 ‘작가’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 전북대학교 강사

『만 가지 슬픔』과 『내 유령 형의 기억들』에 등장하는 ‘나’는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혼혈인 ‘아메라시안’이다. 한국에서 혼혈아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과 기억들은 ‘나’가 모국인 한국사회는 물론 이주국인 미국사회에서 소수자로서의 위치를 깨닫는 계기들이 되었다. 혼혈인의 몸에 새겨진 피부색과 외양으로 인해 ‘나’는 모국과 이주국의 ‘정체성의 정치’에 의해 다르게 호명되었다. 모국에서 ‘나’는 서양적 혼혈인을 뜻하는 아이노꼬, 잡종, 튀기 등으로 불린 반면, 이주국에서는 동양적 혼혈인을 나타내는 쿡이나 칭크로 일컬어졌다. 모국과 이주국에서의 이 같은 호명들은 각각 서양적/동양적 혼혈에 대한 ‘우리’의 경멸적인 시선이 담긴 용어들이다.

『만 가지 슬픔』과 『내 유령 형의 기억들』은 작가 엘리자베스 김과 하인즈 인수 펜클이 소설 속의 ‘나’를 통해 디아스포라 주체의 생산적인 위치성을 적극적으로 표방한 자서전적 소설이다. 이들 디아스포라 주체들이 불안정한, 변방의, 이동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기억들이 재구성된 『만 가지 슬픔』과 『내 유령 형의 기억들』은 모국/이주국에서 안정적인, 중심의, 뿌리내린 ‘우리’의 위치를 탈중심화 하여 민족과 국가라는 공동체가 당연한 실체가 아닌 상황적인 담론임을 투사하였다.

주제어 : 『만 가지 슬픔』, 『내 유령 형의 기억들』, 엘리자베스 김, 하인즈 인수 펜클, 혼혈인, 아메라시안, 디아스포라, 자서전적 소설

## I. 들어가는 말

『만 가지 슬픔』과 『내 유령 형의 기억들』은 한국계 미국인이 쓴 장편 소설이다. 『만 가지 슬픔』은 엘리자베스 김이 2000년에, 『내 유령 형의 기억들』은 하인즈 인수 펜클이 1996년에 발표한 소설이다. 미군 아버지

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출생한 이들 작가는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미국으로 이주한 혼혈인 디아스포라이다. 엘리자베스 김은 혼혈아라는 이유로 강제 입양되었으며, 하인즈 인수 펜클은 독일계 미군인 아버지를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주하였다. 강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엘리자베스 김과 하인즈 인수 펜클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디아스포라이자 혼혈인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만 가지 슬픔』과 『내 유령 형의 기억들』은 자서전적 소설이다. 자서전적 소설은 서술주체인 ‘나’가 경험주체인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서사적 성격 때문에 형식상 1인칭 소설로 나타난다. 그러나 서술주체와 경험주체가 모두 실제 인물이라는 점에서 1인칭 소설과는 다르다. 자서전적 소설에서 ‘나’라는 인물은 서술주체와 경험주체의 간극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층위들로 형성되어 있고 그 다층적 층위들의 유기적인 총체가 실제 인물 ‘작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만 가지 슬픔』과 『내 유령 형의 기억들』은 이러한 자서전적 소설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자서전적 소설이 지닌 특징이란 자서전의 진실성을 담보하면서 소설의 허구성을 가미한 데서 찾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그 근원적인 강점은 소설이 자서전보다 더 진실하다고 선언될 수 있는 양식<sup>1)</sup>이라는 데 있다.

『만 가지 슬픔』과 『내 유령 형의 기억들』에서 드러나는 다층적 층위의 분위는 경험주체이자 서술주체가 분단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출생한 혼혈인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이 시기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들은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혼혈인의 대명사로 통해 왔다. 상당수가 국제결혼이나 연애, 성폭행 등에 의해 태어났는데도 사람들, 이른바 ‘우리’들은 혼혈아의 몸을 통해 미군 아버지의 인종(흑인 혹은 백인)과 한국인 어머니의 직업(양공주)을 판단하였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흑백의 피부색은 혼혈인 자신뿐 아니라 어머니의 삶의 방식은 물론 생사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피부가 검은

1) 필립 르죈, 윤진 옮김,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63쪽.

색이라면 그 혼혈인은 ‘우리’에 의해 하안색의 백인 혼혈보다 상대적으로 비천한 계층으로 여겨졌다.

『만 가지 슬픔』에 등장하는 ‘나’는 검은색 피부의 흑인계 혼혈인으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어머니의 가족에서 쫓겨나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미국인이 되었어도 동양계 흑인 혼혈인은 미국의 주류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나’가 이주국에서 체험한 교육과 결혼, 출산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아시아계 흑인 혼혈 여성’을 바라보는 ‘미국계 백인 남성’ 중심의 시선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1950년대 중반 무렵에 출생한 엘리자베스 김이 40여 년이 훌쩍 지난 2000년에 이르러서야 ‘우리’와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아시아계 혼혈 여성 입양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만 가지 슬픔』에 형상화하였다. 한편, 『내 유령 형의 기억들』에서는 독일계 미군 아버지와 양공주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백인계 혼혈 남성’인 ‘나’가 등장한다. 1960년 경기도 부평의 한 기지촌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는 아버지가 부재하는 다른 혼혈아들과는 달리, 운 좋게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호 아래 성장했다. 1972년 미국으로 건너가기 직전까지의 사건들이 ‘나’의 기억을 바탕으로 이야기된 『내 유령 형의 기억들』에는 ‘내 유령 형’의 존재를 통해 기지촌에서 살았던 하위주체가 지 불러들여 국가와 가족에서 소외되었을 뿐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전락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녹아있다.

분단과 신식민의 산물인 혼혈인이라는 사회적 위치는 엘리자베스 김이나 하인즈 인수 펜클이 모국인 한국사회는 물론 이주국인 미국사회에서 소수자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흑백의 피부색과 곱슬머리 혹은 노랑머리 등의 외모는 엘리자베스 김이나 하인즈 인수 펜클이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되물으면서 자기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의 근원이 되었다. 혼혈인의 ‘흑·백/황’의 피부색과 외양은 이들이 모국과 이주국에서 ‘우리’로 소속될 수 없는 소수자의 표징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몸은 동시에 다수자의 안정적인 뿌리내린 ‘우리’의 위치

를 탈중심화 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수자 ‘우리’는 소수자 타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혼혈인 디아스포라의 불안정한 위치성<sup>2)</sup>이 노정된 『만 가지 슬픔』과 『내 유령 형의 기억들』은 이들의 자기 정체성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우리’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는 해방적 공간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혼혈인 디아스포라의 체험과 기억들로 재구성된 엘리자베스 김의 『만 가지 슬픔』과 하인즈 인수 펜클의 『내 유령 형의 기억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혼혈인의 몸에 새겨진 신식민의 흔적들을 ‘우리’와의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흔적들을 통해 소설 ‘안’에 묘사된 ‘나’의 디아스포라로서의 사회적 위치와 소설 ‘밖’에서 작동되고 있는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 II. 소수자의 몸과 그 흔적

한국에서 혼혈인은 분단과 신식민지적 상황 속에서 태어난 상징적 존재이다. 1950년 중반에 태어난 엘리자베스 김<sup>3)</sup>과 1960년에 출생한 하인

2) 박경환, 「디아스포라 주체의 비판적 위치성과 민족 서사의 해체」, 『문화역사지리』 제19권 제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7, 3쪽(위치성(positionality)이라는 개념은 근대 이성이 가정하고 있는 보편성, 객관성, 일반성, 투명성을 의문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오늘날의 위치성은 페미니즘,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식민주의 등의 비판적 사유와 관련하여 사회·공간적 지형을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들의 경계를 관통하므로 디아스포라 주체가 입지하고 있는 독특한 위치를 강조하는 일은 ‘우리’라는 주체가 보편적 안전판 위에 서 있다는 허위의식에 도전하는 일과 상통한다).

3) 엘리자베스 김(Elizabeth Kim)은 1950년대 중반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대역섯 살 때 어머니가 외삼촌과 외할아버지에 의해 살해당한 후 서울의 한 고아원에 수용되었는데, 버려질 당시 그녀의 원래 이름이나 가족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한 미국인 목사부부에 의해 입양되어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직후 결혼하지만 몇 년 뒤 이혼했다. 『마린 독립

즈 인수 펜클<sup>4)</sup>은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메라시안들이다. 미국 정부가 미군 아버지와 토착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을 지칭하고자 공식적으로 사용한 아메라시안(Amerasian)<sup>5)</sup>은 아시아 지역에 주둔했던 미군과 국제정치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용어이다. 미국 내 아메라시안 대부분은 1950년대 중반 이후 미국으로 입양된 혼혈인들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출신이다.

『만 가지 슬픔』에 등장하는 ‘나’와 『내 유령 형의 기억들』에 등장하는 ‘나’는 모두 아메라시안이다. 아버지가 한국 주둔 미군이며 어머니는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둘의 출생은 유사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전자가 ‘흑인 여성’ 혼혈아이며 후자는 ‘백인 남성’ 혼혈아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삶의 흔적들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었다. 외삼촌과 외할아버지에 의해 어머니가 죽임을 당하자 결국 고아가 된 『만 가지 슬픔』의 ‘나’는 가족이 함께 기지촌에서 살았던 『내 유령 형의 기억들』의 ‘나’보다 한국

---

저널』(Marin Independent Journal)의 기자로 일할 때 한 출판 담당자의 권유로 2000년에 자서전적 소설 『만 가지의 슬픔』을 출판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 4) 하인즈 인수 펜클(Heinz Insu Fenkl)은 1960년 부평의 한 기지촌에서 출생하여 12살 때 부모를 따라 독일을 거쳐 미국으로 이주했다. 캘리포니아 주 카스트로빌에 정착한 뒤 1982년 뉴욕 바사 칼리지를 졸업하였고 1984년 폴브라이트 학자로 한국에 들어와 설화와 샤머니즘을 연구했다. 뉴욕주립대 교수이자 한국문학을 영어권에 소개하는 문예지 ‘진달래(AZALEA)’의 편집위원인 하인즈 인수 펜클은 수십 편의 한국소설과 시를 번역하였다. 『내 유령 형의 기억들』(1996)로 1997년 반즈앤노블이 주관하는 ‘위대한 신인작가’에 선정되었으며 미국펜클럽이 주는 ‘헤밍웨이상’ 최종 심사에 오르기도 했다.
- 5) 한국의 혼혈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982년의 아메라시안 이민법이다. ‘아메라시안(Amerasian)’은 미국인 남성(American)과 아시아 여성(Asian)의 합성어로 펄 벅이 만든 조어이다. 아메라시안 이민법은 1950년부터 1982년까지 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등지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이 시민권과 무관하게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였다(이철우, 「피로써 구별되는 국민들: 혼혈인과 한국사회」,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258쪽).

주류사회의 ‘우리’들에 의해 더 극단적인 배제와 차별을 겪어야 했다.

『만 가지 슬픔』의 ‘나’가 겪은 고통의 근원은 그녀가 흑인 혼혈인이라는 데서 비롯되었다. ‘나’는 가문의 핏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외삼촌과 외할아버지에게 끌려가 대들보에 목을 맨 어머니와 함께 죽을 운명이었지만 외숙모에 의해 간신히 목숨을 건진 후 고아원에 수용되었다. 외할아버지의 제의대로 ‘나’를 다른 집의 종으로 팔려가도록 허락했다면 어머니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것, 혼혈 계집은 종만도 못한 존재야. 그 계집으로선 종이 된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란 말이다. 게다가 그 혼혈아를 사겠다는 집은 아주 덕망 있는 집안이니 이걸 너나 그 사람만도 못한 계집에게는 분에 넘치는 제의야.” 외삼촌이 말했다. 그리고 혼계조로 다음의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쪽 집에서는 에미인 네 허락이 꼭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없는 걸로 하겠다고 했다. 종으로 들이고는 싶지만 에미인 네 뜻을 거스르고 싶지는 않다는 게야. 네가 이번 일에 찬성만 한다면 우리 가문으로서는 치욕을 씻을 수 있으니 우리는 너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 참이다.” 엄마는 부처상 앞에 무릎을 꿇은 자세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마지막으로 대답했다. “그게 천하 없이 좋은 자리고 집안 어른들의 뜻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아이는 이미 떠나고 없으니까요. 죽어도 종살이를 시키기 싫어서 제가 그 아이를 먼 곳으로 보냈어요. 아무도 찾아 낼 수 없는 곳으로요.” 외삼촌은 앞으로 두어 발짝 걸어 나오더니 있는 힘껏 엄마의 뺨을 때렸다.(18쪽)<sup>6)</sup>

외삼촌은 “혼혈 계집”인 ‘나’를 “종만도 못한 존재”, “사람만도 못한 계집”, “가문으로서는 치욕” 등으로 불렀다. 외삼촌에게 ‘나’는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던 것이다. 외삼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주류에 속하는 ‘우리’의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오두막집으로 오가는 도중에 어쩌다

6) 엘리자베스 김, 노진선 옮김, 『만 가지 슬픔』, 대산출판사, 2001, 18쪽(본 논문에서 『만 가지 슬픔』과 관련된 숫자는 이 책의 쪽수임).

만난 마을사람들도 ‘나’를 보고 혼혈이라며 욕을 퍼붓거나 침을 뱉고 돌을 던졌다. 외기는 물론 마을사람들까지 ‘나’를 짐승만도 못한 ‘흑인 혼혈 계집’으로 천대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나’가 스스로를 수치스런 존재로 여기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 『만 가지 슬픔』의 ‘나’가 흑인의 피를 이어 받은 여자아이라는 점에서 ‘우리’에 의해 천민의 지위를 부여받은 반면, 『내 유령 형의 기억들』의 ‘나’는 백인의 피가 섞인 남자아이라는 점에서 ‘우리’에 의해 전자의 ‘나’보다는 덜 수치스런 존재로 취급되었다.

『내 유령 형의 기억들』에 등장하는 ‘나’는 부평의 한 기지촌에서 태어났다. 여섯 살에 용산 기지 내에 있는 미국인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나’는 백수이자 술주정뱅이인 이모부에 의지하면서 성장했다. 귀신 이야기, 호랑이 이야기, 구미호 이야기는 물론 기지촌과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만담꾼 이모부로 인해 ‘나’는 한국적인 정서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혼혈아들이 많이 사는 기지촌 근처에서 이모부 가족과 함께 사는 덕분에 사람들의 편견적 시선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나’는 ‘미국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혼혈아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어렵פות이 깨닫게 되었다.

야만적인 이교도가 되지 않으려면 미국식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방침에 따라 ‘나’는 미국 학교에서 ‘인수’라는 이름을 버리고 ‘하인즈’라는 이름을 써야 했으며, 한국말을 사용해서 선생님에게 ‘입술이 터지는’ 처벌을 받았다. 또한 점심식사로 는 햄버거나 콜라 대신 ‘백인’들이 즐겨먹는 스파게티에 우유를 먹어야 했으며,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이상한 머리 색깔을 한 미국아이들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했다. 한국 내에 있는 용산의 미국 학교는 ‘나’를 ‘미국인’의 이름과 언어, 음식문화의 규격에 맞도록 순치하는 교육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런 혼란스런 일들을 체험하면서 ‘혼혈’의 ‘나’는 성당의 주일학교에서는 ‘순혈’의 한국아들에게, 용산의 미국 학교에서는 ‘순혈’의 미국아들에게 놀림의 대상



이 되었다.

『내 유령 형의 기억들』에 등장하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노코<sup>7)</sup>, 잡종, 튀기 같은 별명을 들으며 자랐다. 한국에서 서양적 혼혈인을 가리키던 별명들은 등교 첫날에 만나 친구가 된 제임스와 함께 다닐 때도 흔히 듣던 호칭이었다. 못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제임스를 더 이상하게 본다는 ‘사실’을 ‘그때 그곳’에 존재했던 ‘나’는 몰랐었다. 그 사실의 의미를 안 것은 20년이 더 흐른 뒤였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제임스가 감동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물론 알기는 했다. 나는 우리 피부색과 비교해서 제임스를 감동이라고 부르면서 개한테 초콜릿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 제임스도 아프리카 흑인과 자기가 닮았다고 노래하면서 스스로 초콜릿 노래를 불렀는데 그 애는 자기가 다르다는 것이 혼혈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았다. 우리 둘이 흔히 듣는 아이노코, 잡종, 튀기 같은 별명 속에서 제임스의 검은색은 녹아버렸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바라볼 때 나보다 자기를 더 이상하게 본다는 사실을 몰랐다. 10년이 지난 후에도 나는 제임스의 비극이 개 아버지가 흑인이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알 수도 없었다. 제임스 엄마와 장미 엄마의 아이러니컬한 균형 잡힌 행동을 나는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해하였다. 균형 잡힌 행동은 얼마나 실용적인가? 백인 남편을 찾기 위해 흑인 튀기 아들을 죽이는 제임스 엄마와 새 흑인 남편을 놓치지 않으려고 흑인 튀기 아들을 만들 계획을 하는 장미 엄마!(289-290쪽)<sup>8)</sup>

- 
- 7) 번역본에서는 영어 원본에 기재된 글자 그대로 ‘오이노꾸’라고 옮겼으나 본 논문이나 인용문에서는 일본어 ‘아이노코’라는 용어로 고쳐 사용하였다. ‘아이노코’(間の子)는 북해도 원주민 아이누인과 일본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을 일컫던 용어이다. 일본인들에 의해 고안되고 유포된 ‘아이노코’는 ‘잡종’ 혹은 ‘튀기’ 등 종(種)이 다른 두 동물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를 이르는 말처럼 혼혈인에 대한 주류사회의 경멸적인 시선이 개입되어 있다.
- 8) 하인즈 인수 쾨클, 문상화 옮김, 『고스트 브라더』, 문학과이식, 2005, 289-290쪽 (『내 유령 형의 기억들』과 관련된 숫자들은 이 책에서 인용한 쪽수임). 본 논문에서는 번역본의 제목 “고스트 브라더”를 영어본의 제목인 “Memories of My Ghost Brother”에 따라 “내 유령 형의 기억들”로 바꿔 표기하고자 한다. 조성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나’는 제임스가 하수구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1학년 때 그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회상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 둘을 보며 ‘아이노꼬, 잡종, 튀기’라고 부르면서도 제임스를 더 이상하게 보았던 이유를 ‘나’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20년이 지나서야 못사람들의 눈총이 백인인 ‘나’보다 흑인인 제임스가 더 비천한 존재임을 표방하는 ‘시선’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것도 제임스의 죽음에 ‘노랑머리’ 미군과 결혼하여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고픈 어머니의 잔악한 소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소문처럼 전해 듣고는 제대로 직시할 수 있었다. 백인을 상대하는 여성은 흑인을 상대하는 여성보다 더 높은 계층으로 여겨졌던 탓에 백인 미군과 재혼해 신분적 상승을 꿈꿨던 제임스의 어머니는 자신의 욕망 실현에 거추장스런 ‘깜둥이’ 자식을 죽였던 것이다. 자기 아들을 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식의 흑백의 위계화가 기지촌에서도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다.

‘노랑머리’는 유럽이나 구미 출생의 이른바 ‘순혈’ 백인의 은유이다. ‘나’의 아버지 또한 ‘노랑머리’이다. ‘나’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처음 본 순간 ‘피부가 우유처럼 희고 머리는 금과 같은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황금색의 ‘노랑머리’, 즉 순혈 백인을 표상하는 그 육체적 특징은 부자나라 미국이나 부유한 미국인을 환유하고 있다. 기지촌뿐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서 ‘백인’은 양공주의 신분에서 벗어나 미국에서 안정된 삶을 도모할 수 있는 탈출구이자 궁핍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다. ‘백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우호적이라 하더라도 ‘나’는 간난이 누나가 상대하던 ‘노랑머리’를 죽이고 싶을 만큼 지독히 싫어했다. 임신 사실을 알고 출행량을 친 ‘노랑머리’ 미군 때문에 간난이 누나가 자살을 했기 때문이다.

---

의 언급대로 “내 유령 형의 기억들”에서 그 기억“들”이 여러 가지 층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조성란, 『하인츠 인수 펑클의 『내 유령 형의 기억들』 연구: 디아스포라, 제국의 환유, 『마크 트웨인 리뷰』 제14권 1호, 한국마크트웨인학회, 2007, 152쪽).

『내 유령 형의 기억들』에서 서술주체 ‘나’는 제임스와 함께 어울려 놀았던 경험주체 ‘나’의 ‘그때 그곳’에서의 경험들을 20년이 지난 이후 기억해 냄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그 경험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고 있다. 경험주체 ‘나’와 서술주체 ‘나’ 사이에는 2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그 간격은 객관적 거리로 환원되는데, 이는 ‘나’의 성찰적 시간들로 그 의미를 가늠할 수 있는 반성적 거리이기도 하다. 『만 가지 슬픔』의 흑인 혼혈인이든 『내 유령 형의 기억들』의 백인 혼혈인이든 한국에서 ‘나’는 ‘순혈’을 강조하는 주류사회의 주변적 존재로 타자화 되었다. ‘아이노꼬, 잡종, 튀기’라는 호명은 혼혈인을 순혈의 ‘우리’와 구별해 소수자로 전락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배제의 장치였다.

### Ⅲ. 디아스포라로서의 아메라시안

『만 가지 슬픔』의 흑인 혼혈인 ‘나’와 『내 유령 형의 기억들』의 백인 혼혈인 ‘나’는 아메라시안이다.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과 토착민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시아계 혼혈인들을 일컫는 이 용어는 ‘아메라시안’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혼혈인을 지칭하는 것만은 아님일 스스로 드러내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흑인/백인 혼혈인인 이들이 입양이나 이주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에서 미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다층적인 해석을 요구한다. 그 다층성은 모국과 이주국에서 아메라시안을 받아들이는 주류사회의 시선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아메라시안’ 자체가 백인 중심의 ‘우리’가 아시아계 혼혈인을 구분하기 위해 고안하고 유포한, 정치적 함의가 내재된 용어이기 때문이다.

『만 가지 슬픔』의 ‘나’는 미국인 목사 부부에 의해 입양되었다. 고아원에서조차 나이가 많아 번번이 국가주도의 혼혈 이민<sup>9)</sup>의 기회를 놓친 ‘나’

9) 해외 입양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임영언·임

는 이 열악한 환경의 고아원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고아들 사이에서도 경쟁적인, 일종의 ‘입양아의 전형적 틀’인 ‘명량하고 온순한 표정’을 지어 보임으로써 어른들에게 선택받았을 때 비로소 성취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마침내 기회가 왔고, 드디어 혼혈 이민 대상<sup>10)</sup>이 되어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었다. 목사인 양아버지는 근본주의 기독교주의자였고 양어머니는 성경 교리주의자이자 백인 우월의식이 강한 사람이었다. 전형적인 백인 중심의 가정 환경 속에서도 유색인종인 ‘나’는 완벽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다.

나는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틀에 나를 맞추고 부모님과 같아지기 위해 인간힘을 썼다. 아버지가 출근하시기 전에 거울 앞에서 타이를 고쳐 매거나 모자를 쓰면 나는 그 옆에 나란히 서서 우리의 얼굴을 비교했다. “나는 아빠랑 꼭 닮았죠?” 아버지의 얼굴은 전형적인 백인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황토색 피부에 검은 곱슬머리, 아몬드 모양의 눈을 가진 내 얼굴이 비쳐 보였다. 나는 내 외모가 싫었다. 한국이든 미국

---

채완, 「해외입양 한인 디아스포라: 한국 내 주요 신문보도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제26호,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2012, 80쪽). 이승만 정부는 ‘혼혈아를 아버지의 나라로’라는 기치를 내세워 ‘인종청소’ 수준에 맞는 혼혈아의 입양 정책을 급속하게 진행시켰는데 엘리자베스 김의 이주 또한 정부의 ‘강제적인’ 입양 정책의 한 결과물이다.

- 10) 코헨은 디아스포라를 희생 디아스포라, 노동 디아스포라, 상인 디아스포라, 제국 디아스포라, 문화 디아스포라 등, 5개의 유형(Robin Cohen, *Global Diaspora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7, p. x)으로 나누어 실재하는 다양한 디아스포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코헨의 유형들은 상호 중첩되거나 대립 변화하는 과정을 포착하지 못하며 무엇보다도 디아스포라 그 자체가 하나의 범주로 묶이는 순간 디아스포라 주체의 “생산적인 불안정성”이 제거된다는 한계(박경환, 앞의 논문, 5쪽)가 있지만 혼혈인 디아스포라들을 거칠게나마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윤인진은 코헨의 유형을 잘 정리해서 기술했는데 국가주도의 강제적인 혼혈 이민은 일종의 인종청소에 해당되며, 엘리자베스 김의 경우는 ‘희생 디아스포라’(윤인진,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고전 및 현대 연구 검토」, 『재외한인연구』 제28호, 재외한인학회, 2012, 13쪽)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든 내 얼굴은 어디에서 어울리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너무 서양인 같아 보이던 내 눈이 미국에서는 너무 동양인 같아 보였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인종의 용광로라는 이 사회에서 혼혈아인 내 얼굴을 보고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현상이었다. 당시 우리 마을에서 백인이 아닌 사람은 나 하나뿐이었고 이 나라 전체에서도 나와 같은 부류는 많지 않았다. 혼혈인 나도 이럴 정도인데 완전한 동양인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 할지 모를 일이었다. 실상 내 얼굴은 어디를 가나 조롱거리였다. 집에서는 어머니의 끊임없는 잔소리 덕택에 내가 얼마나 남과 다르게 생겼는지 한시도 잊을 겨를이 없었다.(93-94쪽)

피부색과 외모가 양부모와 완전히 달랐지만 ‘나’는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안간힘을 썼다. 양부모는 ‘서울의 뒷골목에서 생활하며 음식 한 조각이라도 더 먹으려고 싸우는 한국전쟁의 고아들 이야기’를 매일 같이 들려주면서 ‘나’가 이 집에 입양된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를 되새겨 주었다. 또한 ‘엄마’를 악독하고 타락한 창녀로 욕하면서 자신들의 자애를 기억하도록 종용했다. 이런 인신공격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부모와 그 집에 완벽하게 적응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렇지 않으면 고아원으로 되돌려 보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던 탓이다. 하지만 집 밖을 나서면 ‘황토색 피부에 검은 곱슬머리, 아몬드 모양의 눈을’ 가진 ‘나’는 백인 일색의 마을에서 조롱거리였다. 아시아에 주둔했던 미군의 ‘부산물’이라는 흔적이 ‘나’의 몸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아이들은 ‘나의 곱슬머리를 조롱했고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내 눈과 몽툰한 코’를 놀려 댔으며 가끔 튀어나오는 한국식 억양도 웃음거리가 되었다. 아이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한 ‘나’는 쉬는 시간에는 운동장 맨 끝에 앉아 찰스 디킨즈의 책을 읽으며 혼자서 점심을 먹었다.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자 아이들은 ‘나’를 누렁이라고 불렀다. 결혼 이후에도 ‘나’의 동양적 외모는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아버지가 목사로 일하던 교회의 부목사였던 남편은 결혼하자마자 ‘나’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주류인 ‘우리’들 앞에서는 언제

나 자상한 미소를 짓는 ‘백인’ 남편이었기에 사람들은 ‘나’의 고통스런 결혼생활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몰래 피임약을 끊어버린 후 임신을 하고 딸 리를 낳자 ‘나’는 이혼을 결심했다. 딸 앞에서도 폭력을 서슴지 않는 남편과 살다가는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혼하고 나서야 ‘나’는 고통을 조금씩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딸이 대학생이 되었어도 미국에 적응하는 동안 겪어야만 했던 사회적 고통들 때문에 ‘나’는 늘 자살의 유혹에 시달렸다. 미국인이지만 언제나 유색인종 여성이며 백인사회의 불청객이자 주변적 존재로 타자화된<sup>11)</sup> ‘나’는 이처럼 오랫동안 ‘우리’ 밖의 소수자로 살았다. 그런데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삼중 사중의 억압들은 ‘나’로 하여금 백인 중심의 순혈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기독교 원칙주의에 얽매이지 않은 채 디아스포라로서의 위치를 재확인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동기가 되었다.

한편, 『내 유령 형의 기억들』의 ‘나’는 꿈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령의 실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이모의 딸 혜순을 통해 미국으로 강제 입양된 형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노랑머리’ 아버지가 다른 인종의 피를 이어받은 형을 아들로서 인정하지 않은 탓에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것이다.

8월이 되고 다시 학교가 시작되어도 매일 밤 꿈을 꾸었다. 보름달 같은 문둥이가 나타나거나 맑은 잔물결 아래 잠겨 있는 내 얼굴이 나타나곤 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한, 우리가 일본군 대령의 집에서 살 때부터 본질적으로는 항상 똑같지만 겉으로는 상당히 다르게 반복되는 것이 있었다. 커튼이 없는 창문 앞에 그림자가 하나 있다. 고개는 차마 못 돌리고 눈만 깜박거리면서 거기 있는 꼬부랑 할멈을 본다. 할멈은 흰색 저고리에 누런색 치마, 밑바닥에 시커멓게 때가 탄 버선을 신고 있었다. 할멈은 항상 뭔가 의심스러운지 아니면 무엇인가 결정을 못 했는지 중간에서 망설이고 있다. 할멈이 몸을 돌리자 슯둘레다 막 간 시퍼렇게 날

11) 유진월, 「이산의 체험과 디아스포라의 언어: 해외입양인 여성문학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2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59쪽.

이 선 부엌칼을 들고 있는 손이 보인다. 꿈속에서 할멈이 누구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안다. (...) 천천히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 늙은 할멈이 나를 향해 몸을 돌려서 칼을 높이 쳐든다. 지금 나는 결정해야 한다, 지금. 그러나 할멈이 몸을 돌려 미닫이문을 조금 열고 문틈으로 바라본다. 할멈의 눈이 커진다. 할멈은 대문에 누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짓고는 소리 없이 우리를 지나 문간으로 나선다. 현관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항상 궁금한 상태에서 잠에서 깨어났다. 눈에 익은 모습인데다 나를 많이 닮아 나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아니었다. 그 사람은 내가 되기엔 너무 나이가 많고 몸이 마른데다 얼굴이 길고 귀가 컸다. 피부도 나와 달랐고 내가 볼 때마다 겁에 질리고 말할 수 없이 슬픈 표정이었다.(252-253쪽)

일제강점기 ‘일본’군 대령이 살았던 가옥에 ‘미국’ 군인 아버지가 세 들어 살면서부터 꿈속에서 출몰한 유령의 실체가 동북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나’는 기억의 심연에 묻혀 있던, 이웃으로 살았던 죽은 사람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기지촌들이 들어선 부평에서는 기차길에서 쇠조각을 꺼내려다가 기차에 깔려죽은 구두닦이, 터미널에서 빠른 길로 가려다 버스 사이에 끼어 죽은 심부름꾼 아이, 큰길에 막 깔아놓은 아직 굳지 않은 아스팔트에 박힌 하이힐을 꺼내려다 트럭에 깔려죽은 술집여자처럼 하위주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나갔다. 그러나 참사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가마니 한 장으로 이들의 죽음을 마무리하였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의 시야에 잠시 머물다 곧장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다.

기지촌은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서로 충돌하고 교차하는 현장이었다. 기지촌에서 죽어간 ‘구두닦이, 심부름꾼 아이, 술집여자’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나가는 하위주체의 ‘유령들’ 덕분에 한국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휴전협정 후 15년 넘게 힘겨운 평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나’는 바로 이러한 사이/틈새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내 유령 형’뿐 아니라 기지촌의 여러 유령들과 조우할 수 있었다. 또한 월남전에 참전한 아버지의 부재로 양키 물건을 사고팔던 오지랖 넓은 어머니 덕분에 ‘나’는 부평 미군부대 클럽에서 일하는 웨이트리스, 미군

부대 정문에서 웃음 짓던 창녀, 미군 남편을 구하는 여자, 미군 버스를 타는 여자 등, 양공주들도 알게 되었다. 어머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나’는 아버지의 나라 ‘미국’에서 맞닥뜨려야 할 갖가지 역경들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를 기지촌이라는 공간을 통해, 그리고 한미 간의 문화적 충돌이 교차되는 어머니의 일상을 통해 ‘미리’ 배웠던 것이다. 미군들에 의해 ‘꾹’ 혹은 ‘칭크’라고 불렸던 일은 ‘나’가 아메리시안으로서 미국에서 부딪쳐야 할 국가, 인종, 성, 계급의 중첩적 갈등들을 앞서 경험한<sup>12)</sup> 사례 중 하나에 해당되었다.

#### IV. 혼혈인의 자기 해방적 글쓰기

『만 가지 슬픔』의 ‘나’는 미국으로 입양되어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후 한국에서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지우고 새로운 미국 생활에 적응해야 했다.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바뀌고 변했어도 ‘엄마’라는 존재만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되지 않았다. 양부모가 ‘엄마’를 악독하고 타락한 창녀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악담을 퍼붓는데도 여전히 ‘엄마’는 항상 ‘나’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다. 양부모가 ‘엄마’를 대신할 수 없게 되면서 책이 ‘나’의 구원자이자 최상의 안식처가 되었다. 열 살 쯤 되던 어느 날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가 쓴 시를 접한 이후 창작 의욕이 생긴 ‘나’는 직접 시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통은 끊임없이 ‘나’를 짓눌러 자살의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때도 많았다. 시를 통해, 명상을 통해, 채식은 통해, 치료를 통해,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 가시적인 외면의 ‘나’는 점점 잃어버린 비가시적인 내면의 ‘나’를 찾게 되었다. 그러나 ‘나’에게 가해진 사회적 폭력과 고통의 경험은 쉽사리 망각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재구성<sup>13)</sup> 되

12) 조성란, 앞의 논문, 162쪽.



었다.

‘나’는 유색인종이자 소수자이며 여성이라는 존재여서 백인 중심의 ‘우리’에 의해 타자화되는 것은 물론 재식민화 되었다. 그 사이 ‘나’는 양부모의 박해와 남편의 폭행 및 외도 등에서 비롯된 고통 때문에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런 지독한 고통을 겪으면서 ‘엄마’가 그랬듯이 ‘나’ 또한 딸 리를 위해 목숨까지 불사하며 지켜내야만 ‘엄마’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인식한 ‘나’는 ‘엄마’에게 부치지 못할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요즘 제 인생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엄마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전 늘 제가 엄마처럼 고통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와 하나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전 엄마와 저를 동일시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엄마와 함께 했던 추억을 더럽히는 일임을 알았어요.(…)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엄마와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제는 이것만이 그 길임을 알았어요. 엄마와 같아지기 위해 저는 당신이 넣고 살리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그 딸을 소중히 여겨야만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 전 그 아이의 행복과 자유, 완전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것이 엄마가 원하던 것이었으므로 전 그렇게 할 거예요. 엄마를 정말로 사랑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엄마 없는 세상은 너무나 외로워요. 하지만 제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저는 제 안에 살아 숨 쉬는 엄마의 영혼을 느껴요.(265-266쪽)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자신 안에 살아 숨 쉬는 ‘엄마’의 영혼을 느낄 수 있음을 인식한 자기 발견은 결국 『만 가지 슬픔』이라는 자서전적 소설을 형상화하는 토대가 되었다.

13) 김미덕, 「한국문학에서 기지촌 성매매 여성과 아메리시안에 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46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7, 42쪽.

미군과 몸을 섞고 혼혈아를 낳은 어머니는 한국 남성의 민족주의적 자존심 훼손을 상기시키는 존재이자 ‘국가의 성’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로서 작품의 제목처럼 ‘만 가지 슬픔’을 겪었다.<sup>14)</sup> 그러나 『만 가지 슬픔』의 ‘엘리자베스’가 소설 밖의 저자 “엘리자베스 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가부장제의 명령에 맞서 딸의 생명과 존엄을 목숨으로 지켜낸 ‘엄마’의 저항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순혈’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에 저항하다 살해당한 ‘엄마’의 존재는 『만 가지 슬픔』을 통해 되살아나는 것이다. 하위주체 ‘엄마’가 말할 수 없었던 ‘만 가지의 슬픔’ 일들을 그의 딸 ‘엘리자베스 김’이 ‘엄마’와의 진정한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환함으로써 『만 가지 슬픔』은 여성과 여성 혹은 엄마와 딸(엄마)을 통해 하위주체도 말할 수 있음을 증명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 엘리자베스 김은 아메라시안의 억압되고 주변화된 차이를 ‘엄마’와 딸, 그리고 ‘딸·엄마’와 딸의 관계를 통해 『만 가지 슬픔』에 자동적으로 드러내 보여 모국과 이주국이 지닌 근대 체제의 야만을 증언함과 동시에 자기 해방을 도모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김과 같은 디아스포라 주체들은 자기가 떠나온 “거기”에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소속되어 있으며 동시에 자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 존재하면서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이성(in-betweenness) 혹은 이중성(doubleness)을 담지하고 있기에 디아스포라 주체들은 지배적인 ‘우리’의 권력에 의해 구성된 지리적, 심리적 경계에 도전할 수 있는 불안정한 위치성을 지니고 있다.<sup>15)</sup> 그러므로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와 순혈적인 민족주의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위치한 하위주체 ‘엄마’를 소환하여 아메라시안 여성의 불안한 위치성을 노정한 자서전적 소설 『만 가지 슬픔』은 디아스포라 주체로서의 자기 해방적 글쓰기이자 모국과 이주국에서 양산된 지배적인 ‘우리’ 담론의 허위를 드러내는 전복적 토대

14) 임진희, 「혼혈 입양 내러티브로서의 『만 가지 슬픔』」, 『현대영미소설』 제18권 1호,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2011, 97쪽.

15) 박경환, 앞의 논문, 5쪽.

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내 유령 형의 기억들』 또한 디아스포라 주체의 불안정한 위치성에 입각해 있다.

『내 유령 형의 기억들』에서 ‘나’의 부모관계는 인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계화 되어 있다. 어머니는 ‘노랑머리’ 미군과 결혼하기 위해 이전에 낳았던 아들의 양육을 포기해야만 했다. 자식을 유기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어머니는 미국에만 가면 입양된 아들부터 찾아보려고 단단히 결심을 했다. 하지만 그 일은 아버지가 부재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아버지는 자신의 핏줄을 잇는 장자권을 다른 사람의 피가 섞인 타자에게 부여하고 싶지 않은 전형적인 가부장 ‘노랑머리’<sup>16)</sup>였다. 미군 버스에서 내리는 아버지에게 이모가 간난 아기인 ‘나’를 처음으로 건넸을 때 아버지는 혼혈아를 가졌다는 부끄러움에 약간 낮을 붉혔을 뿐 아니라 이 아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은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했었다. 게다가 집으로 들어와서는 ‘한국사람’이 아이를 건네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게 했으며 엄마에게 몹시 화를 냈다. 아버지에게 ‘한국사람’은 미국의 지배를 받는 ‘저급한’ 부류이며 미군 ‘사람들’이야말로 자신과 동등한 지위의 미국인<sup>17)</sup>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16) 임경규는 디아스포라 논의에서 백인 남성 주체가 제외된 이유가 이들이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백인 남성은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주체로서 국가적 경계선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그 위에 군림하며, 지리적 경계선의 생산자임과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는 존재라고 보았는데(임경규, 『화이트 디아스포라 vs. 네이티브 디아스포라-디아스포라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어영문학21』, 제25권 4호, 21세기영어영문학회, 2012, 91-92쪽), 미국 시민권이 있는 가부장 ‘노랑머리’ 아버지는 전형적인 백인 남성의 한 표상임을 알 수 있다.

17) 하인즈 인수 펜클의 아버지는 독일계 미국인이다. 그는 고향 체코의 수데텐란트가 1938년 히틀러에 의해 독일로 합병되는 바람에 남부의 뮌헨 근방으로 강제이주한 경험이 있다. 체코에서는 독일인으로, 독일에서는 체코에서 온 이주민으로 살아야 했던 하인즈 인수 펜클의 아버지는 미국으로 이민한 이후 군대에 지원해 한국에서 근무했다. 베트남 전쟁에 두 번이나 참전했으며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미국과 독일의 여러 부대를 돌아다니며 근무했다(서승희, 『하인즈 인수 펜클의 『내 유령 형의 기억』에 나타난 샤머니즘적 소통의 시도』, 고려대학교 석

아버지가 월남에서 첫 휴가를 나왔을 때도 그의 이러한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어머니와 함께 의정부의 미군 기지로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때 ‘동료들’에게 ‘한국 부인’을 보이는 것이 위신이 깎이는 일이라며 불같은 화를 내는 바람에 그 후로 어머니는 미군 기지에 두 번 다시 가지 않았다. 말하자면, ‘양공주’ 출신인 한국인 아내와 혼혈인 아들은 아버지의 오점이자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다. 강제 입양된 형 ‘구리스토’뿐 아니라 ‘나’와 어머니 또한 아버지의 진정한 가족에서 소외된 ‘유령’에 지나지 않았다. 형의 유령을 통해, 그리고 기지촌에서 죽은 여러 유령들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반문하고 응시하면서 비로소 자신 또한 ‘우리’ 사회의 유령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나는 반항아가 아닌 순종적인 아들로 변해갔다. 일제에 관한 영화 속에서 결의, 슬픔, 희망도 없이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한국인 죄수처럼 미국으로 갔다. 나는 죽은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했다. 간난이 누나, 철수, 제임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일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름을 만들어 주려고 했다.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어린 소녀, 부주의한 택시 운전사가 친 꼬마, 엄마가 물에 빠뜨려 죽인 것 같은 소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또 우물에 빠진 아기, 우물로 뛰어든 엄마, 백혈병으로 죽은 애, 목을 매려는 순간 발작으로 죽은 이모부<sup>18)</sup>, 하늘에서 떨어지는 아름다운 가루 때문에 암으로 죽은 아빠도 있다. (...) 구리스토, 이미 서쪽나라로 가버린 내 형의 혼령. 구리스토. 노랑머리 미군 아빠 이전부터의 꿈속의 가족. 내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던 꿈이었다. (...) 용의 뱃속으로 우리를 데려갈 톱니모양의 계단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나는 꿈에서 태어났고 나는 지금 천국으로, 서쪽나라로, 또

사학위논문, 2005, 2쪽). 사실상 하인즈 인수 쾨클의 아버지야말로 미국사회의 디아스포라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 18) 번역본에서는 영문 원본에 따라 ‘이모부’를 ‘형부’로 표기했다. 소설 속의 ‘나’는 어머니가 이모부를 부른 호칭 그대로 ‘형부’로 불렀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가독성의 편의를 위해 번역본의 ‘형부’를 ‘이모부’로 고쳐 기재했음을 밝혀 둔다.

다른 꿈으로 날아간다고 생각했고 또 앞으로도 생각할 것이다! 내가 지금 깨어난다면 다시 잠들었다가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는 새 꿈을 꾸기 위해 깨어날 것이다.(333-335쪽)

『내 유령 형의 기억들』에서 ‘나’는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한국인 죄수 처럼 미국으로 갔다.’ 꿈속에서 변형되어 나타나는 형의 유령을 통해 기지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그 유령들의 존재를 발견한 ‘나’는 ‘부평의 기지촌’에서 살았던 일들을 미국에 건너가 글로 옮겨 쓰기로 마음 먹었다. 기지촌은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충돌하면서도 조우하고 있는 사각지대이며 신식민지의 슬픈 역사를 담고 있으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사이 공간이자 온갖 힘이 부딪치는 완충지대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모부가 들려주던 갖가지 민담이나 전설의 이야기들처럼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고 회자될 수 있는 ‘기지촌 이야기’를 통해 이곳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것이다.

꿈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난 ‘내 유령 형’은 이름 없이 죽어간 기지촌 사람들의 존재를 기억해내는 집합기억의 통로이다. 기지촌 사람들과 관련된 ‘나’의 기억들은 하위주체나 유령들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내 유령 형의 기억들』은 공식적 기억에 균열을 내고 있다. 따라서 공적 기록이나 역사에서 소외된 기지촌의 하위주체들과 유령들을 소환한 『내 유령 형의 기억들』이야말로 디아스포라 주체의 생산적인 위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을 떠난 지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서술주체 ‘나’는 하위주체 유령들뿐 아니라 ‘간난이 누나, 철수, 제임스, 조니, 이모부, 아빠’부터 살아 있지만 사실상 가족에게 유사 죽임을 당한 ‘구리스토’까지를 망라한 이들의 이야기를 『내 유령 형의 기억들』을 통해 독자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었다. 『내 유령 형의 기억들』 속에서 죽은 이들의 목소리는 되살아날 것이고 또한 그 사람들이 빚어내는 다양한 층위에 경험주체 ‘인수’를 위치시켜야만 ‘우리’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혼혈인 디아스포라 ‘나’의 정체

성을 표방할 수 있다. 『내 유령 형의 기억들』은 ‘지금 여기(이주국)’에 존재하는 서술주체 하인즈 인수 펜클 ‘나’가 ‘그때 그곳(모국)’ 기지촌에 ‘인수’로 존재했던 경험주체 ‘나’를 기억해냄으로써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투사한 자서전적 소설이다.

## V. 맺음말

『만 가지 슬픔』과 『내 유령 형의 기억들』의 작가 엘리자베스 김과 하인즈 인수 펜클은 둘 다 아시아에 주둔한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한 아시아계 혼혈인 디아스포라이다. 『만 가지 슬픔』의 작가 엘리자베스 김이 ‘입양된 혼혈 여성’ 작가로서 인종/계급/성으로부터 소외되었다면, 『내 유령 형의 기억들』의 작가 하인즈 인수 펜클은 ‘비자발적 이주의 혼혈 남성’ 작가라는 점에서 다른 서사적 정체성을 노정할 수밖에 없다. 물론 『내 유령 형의 기억들』에는 미국으로 이주한 12세 이후의 일상이 서사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상세히 살펴볼 수는 없겠다. 하지만 ‘일본군 유령’을 통해 고문으로 사라진 수만 명의 조선인들 이야기에서부터 ‘내 유령 형’을 통해 기지촌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전달함으로써 ‘우리’의 그림자로 살았던 하위주체들을 소환했다는 점에서, ‘나’ 또한 인종적, 계급적, 성(‘비국민적’ 남성)적으로 배제된 존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만 가지 슬픔』과 『내 유령 형의 기억들』에 등장하는 ‘나’는 아메라시안이다. ‘아메라시안’이라는 이 미국식 조어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혼혈인들이 주둔 미군과의 관계 속에서 탄생되었음을 표방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아시아계 혼혈인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기억들은 ‘나’가 모국인 한국 사회는 물론 이주국인 미국사회에서 소수자로서의 위치를 깨닫는 계기

들이 되었다. 『만 가지 슬픔』과 『내 유령 형의 기억들』에 나타나는 다층적인 신식민 지배의 흔적은 ‘나’가 혼혈인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데 모국과 이주국에서 통용되는 상이한 호명은 그 흔적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모국에서는 서양적 혼혈인을 뜻하는 ‘아이노꼬, 잡종, 튀기’로 불린 반면, 이주국에서는 동양적 혼혈인을 나타내는 ‘누렁이, 쿡, 칭크’로 호명되었던 것이다.

엘리자베스 김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와 순혈적인 민족주의에서 가장 아래 단계에 속하는 ‘엄마’를 소환하고, 하인즈 인수 펜클은 기지촌이라는 사이 공간에 존재했던 경험주체 ‘인수’의 유령 형을 불러들였다. 이들 디아스포라 작가들은 ‘우리’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하위주체들을 『만 가지 슬픔』과 『내 유령 형의 기억들』에 형상화함으로써 공식역사에 균열을 내고 있다. 이로써 한국계 미국인 작가들의 자기 해방적 글쓰기는 결과적으로 모국과 이주국 사회의 ‘우리’ 중심 담론이 지닌 허위성을 드러내는 전복적 토대가 되었다. 주변적이고, 불안정한, 실제적인 ‘혼혈인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기억들이 재구성된 『만 가지 슬픔』과 『내 유령 형의 기억들』은 모국/이주국에서 중심적이고, 안정적이며, 상상된 ‘우리’의 위치를 탈중심화 하여 민족 혹은 국가라는 공동체가 당연한 실체가 아니라 상황적인 담론임을 투사하였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엘리자베스 김, 노진선 옮김, 『만 가지 슬픔』, 대산출판사, 2001.  
하인즈 인수 펜클, 문상화 옮김, 『고스트 브라더』, 문학과이식, 2005.

### 2. 논문 및 단행본

- 김미덕, 「한국문학에서 기지촌 성매매 여성과 아메리시안에 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46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7, 7-54쪽.
- 박경환, 「디아스포라 주체의 비판적 위치성과 민족 서사의 해체」, 『문화역사지리』 제19권 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7, 1-12쪽.
- 서승희, 「하인즈 인수 펜클의 『내 유령 형의 기억』에 나타난 샤머니즘적 소통의 시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철우, 「피로써 구별되는 국민들: 혼혈인과 한국사회」,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233-261쪽.
- 임경규, 「화이트 디아스포라 vs. 네이티브 디아스포라-디아스포라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어영문학21』, 제25권 4호, 21세기영어영문학회, 2012, 91-122쪽.
- 조성란, 「하인즈 인수 펜클의 『내 유령 형의 기억들』 연구: 디아스포라, 제국의 환유」, 『마크 트웨인 리뷰』 제14권 1호, 한국마크트웨인학회, 2007, 151-170.
- 임영언·임채완, 「해외입양 한인 디아스포라: 한국 내 주요 신문보도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제26호,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2012, 77-104쪽.
- 임진희, 「혼혈 입양 내러티브로서의 『만 가지 슬픔』」, 『현대영미소설』 제18권 1호,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2011, 93-121쪽.



유진월, 「이산의 체험과 디아스포라의 언어: 해외입양인 여성문학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2권 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55-81쪽.

윤인진,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고전 및 현대 연구 검토」, 『재외한인연구』 제28호, 재외한인학회, 2012, 7-47쪽.

필립 르죈, 윤진 옮김,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998.

Cohen, Robin, *Global Diaspora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7.



<Abstract>

## Reconstruction of Memory of the Half-breeds as Diaspora: Focusing on *Ten Thousand Sorrow and Memories of My Ghost Brother*

Byeon, Hwa-Young\*

This article focuses on *Ten Thousand Sorrow and Memories of My Ghost Brother*, the former is written by Elizabeth Kim while the latter by Heinz Insu Fenkel. Both are autobiographical novels. In autobiographical novel, generally, it is ensuring the authenticity of autobiography while adding its fabrication as a fiction. Due to its nature of narrative that subject of description 'I' talk to the experience subject 'I', 'I' in the autobiographical novel should be located at the multi layers which constructed between the subject of description and the experience subject. So the whole which related with and constructed by the multi layer is represented in one space, where the 'I' in the novel and the identity of author as 'real person' are exposed.

In *Ten Thousand Sorrow and Memories of My Ghost Brother*, the 'I' or the author is Amerasian. That is, she/he was born as a half-breed between US Army father and Korean mother. Because of their socio-biological position as minority, Elizabeth Kim and Heinz Insu Fenkel who are Amerasian as well as diaspora, were not accepted or rejected by 'our' society in Korea where is their native land and in America where they migrated by force or involuntary.

---

\*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color and appearance of the body as half-breed became a kind of socio-cultural marker which indicating they are different 'thing' and should be separate from both of 'our' society.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among them, depending on their body color, appearance, sex, family(oriented or adapted), and etcetera, even though they were/are called as 'half-breed', 'Amerasian', or other names by the terms of politics of identity in Korea and America.

Key Words : *Ten Thousand Sorrows, Memories of My Ghost*

*Brother*, Elizabeth Kim, Heinz Insu Fenkl, half-breed,  
Amerasian, diaspora, autobiographical novel

■ 논문접수 : 2013년 11월 15일

■ 심사완료 : 2013년 12월 13일

■ 게재확정 : 2013년 12월 16일